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중간 선거 결과]

- WSJ: 연방 하원은 공화당 우세... 상원은 접전중
- northjersey: 뉴저지 연방하원 당선자는 앤디 김, Gottheimer 등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10월 인플레이 약간 주춤할 것, 하지만.... 연준 큰 폭 금리 인상 계속 가능성
- JP모건 보고서: 미 팬데믹 저축 규모와 소비자 신뢰도 떨어진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모기지율 7.14%로 상승... 2001년 이래 거의 최고치
- WSJ: 일부 투자자들, “연준, 20년래 최고치로 금리 인상”에 베팅
- Bloomberg Opinion: ‘미 경기 침체’ 피해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
- CNBC: 일론 머스크, 트위터 인수 후 39억 5천만 달러치 테슬라 주식 매각

[IRA 법]

- CNBC: 유로존, 미국의 전기차량 보조금에 집단 항의

[글로벌 경제]

- WSJ: 중국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...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고
- Bloomberg: 한국 실업률 낮게 유지... 일자리 증가 속도는 둔화
- WSJ: 유럽, 경제 위기에 “더 큰 정부”로 대응한다

[물류/운송]

- Bloomberg: 중소기업 물류 부담 완화... 인플레이는 여전한 걱정거리

[한국 경제지 기사들]

- 한경: "IRA 예산 폐기" 버르는 공화당...한국 車업계 숨통 트이나
- 연합뉴스: 前 보스턴 연은 총재 "美, 2023년 완만한 경기 침체 맞이할 것"
- 연합뉴스: 美달러 가치 7주새 최저로 급락..."약달러로 전환은 '시기상조'"
- 한경: 저커버그 "메타, 직원 11,000명 해고...모든 게 내 책임"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CNBC: 디즈니, 스트리밍 구독자보다 매출과 수익 희망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바로 고침]

어제 기사 “일본도 미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‘동등 혜택’ 요청”에서 ... 일본 정부는 “보조금 조치는 공급망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미국과 중국(중국 >>> 일본)의 협력 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조치”라고 설명했다.

[미 중간 선거]

WSJ: Control of Congress Still Up for Grabs

연방 하원은 공화당 우세... 상원은 접전중

현재 하원은 공화당 198석, 민주당 175석

상원은 민주당 48석, 공화당 47석....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에 달려있어

-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화당이 연방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압도적인 강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- 연방 상원의 경우 현재 백중세에 중요한 주에서 여전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조지아주는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. 네바다와 애리조나도 마찬가지.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됐다.
- 주지사 선거는 뉴욕 위스콘신 미시간 주의 현 민주당 주지사가, 그리고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선 현 공화당 주지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.
- 한편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'퍼주기' 정책과 대 중국 정책이 변경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northjersey: 뉴저지 연방하원 당선자는 앤디 김, Gottheimer 등

- 한편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3 선거구는 한인 앤디 김, 5선거구의 경우 이번 주 월요일 KOCHAM 30주년 기념 경제 포럼에서 축사를 해준 민주당의 Josh Gottheimer가 당선했으며, 같은 당 지역구 8과 9 선거구의 Menendez와 Pascrell이 각각 당선됐다.
- 7선거구의 경우 공화당은 Kean Jr.이 당선됐다.

northjersey 기사

[미국 경제]**Bloomberg: US Inflation to Cool Only Slightly, Keeping Big Fed Hike in Play**

10월 인플레이션 약간 주춤할 것, 하지만.... 연준 큰 폭 금리 인상 계속 가능성

- 내일 발표되는 미 인플레이션이 약간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연준의 큰 폭 금리 인상이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. 연준의 인상 공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.
-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 모두 연간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파워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- 전반적인 CPI는 지난 9월에 비해 올해 6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.
- 아래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핵심 물가 예상치

Predictions from major banks:		
Firm	CPI (MoM)	Core CPI (MoM)
Bank of America	0.5%	0.4%
Citigroup	0.6%	0.4%
Deutsche Bank	0.6%	0.5%
Goldman Sachs	0.5%	0.4%
JPMorgan Chase Securities	0.6%	0.4%
Morgan Stanley	0.7%	0.5%
Wells Fargo	0.6%	0.5%

Bloomberg 기사

JP 모건 보고서: Falling pandemic savings and US consumer confidence: Excess savings from early stages of pandemic to be depleted by mid-2023

미 팬데믹 저축 규모와 소비자 신뢰도 떨어진다

- 요약: 팬데믹 초에 연방정부의 부양책에 따른 국민들의 저축 규모가 내년 중순까지 고갈 될 것으로 보인다. 팬데믹 전과 비교해서 당시 초과 저축액은 2.1천억달러였다.
- JP 모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%는 올해 초와 비교해서 향후 수개월 간 비필수품 소비는 적어도 10%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.
- 저소득층의 3분의 2가 생활비를 위한 충분한 저축이 없다고 했으며 해당 비율은 중간소득층은 44%, 고소득의 24%만 충분한 저축이 없다는 것.

JP 모건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US Mortgage Rates Rise to 7.14%, Near Highest Level Since 2001

미 모기지율 7.14%로 상승... 2001년 이래 거의 최고치

- 지난주 모기지율이 이같이 다시 올라 주택 수요 추가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.
- 11월 4일 끝나는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7.14%로 지난 2001년 이래 거의 최고치라고 Mortgage Bankers Association는 어제 수요일 밝혔다.
- 모기지 전반적인 신청건수와 채용자 신청수는 떨어졌고 지난 1997년 이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. 채용자 활동 지수는 지난 22년 최저치.
- 당연히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조치들 때문이다. 이렇다보니 주택 구매자들은 조정 가능 용자(adjustable-rate loan) 같은 값싼 용자 옵션을 찾고 있다. 5년짜리 adjustable mortgage rate는 5.87%로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높다.

Bloomberg 기사

WSJ: Some Investors Bet Fed Could Lift Rates to Two-Decade High

일부 투자자들, “연준, 20년래 최고치로 금리 인상”에 배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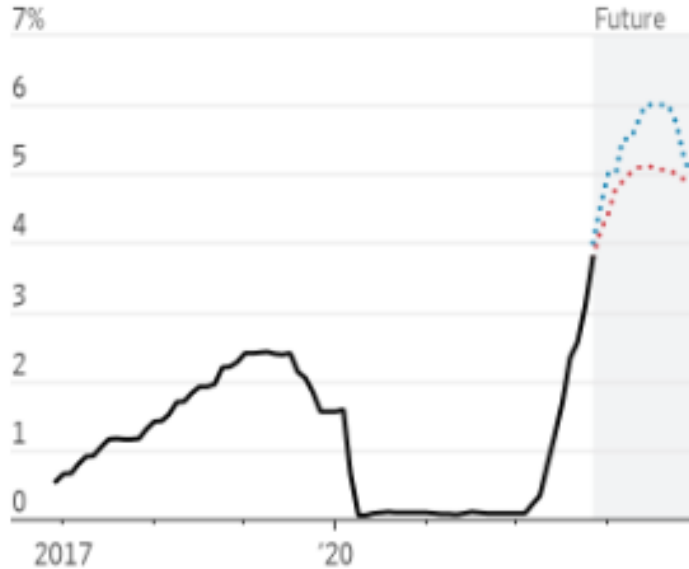
- 이같은 연준의 강한 입장을 예상한 이유는 강한 인플레이가 2년째 계속되기 때문이다.
- 당초 월가는 연준이 강한 금리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가 꺾일 것으로 상당기간 생각하고 있었다. 그러나 지난주의 예상 외 미 일자리 창출 보고서로 인해 (26만개 일자리) 여전히 강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놀라게 된 것이다.
- 현재 가장 심각한 관심사는 연준이 목표 금리를 거의 6% 정도로 올릴지 관심거리다. 이 금리 수준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. 즉, 6% 가까이 올릴 경우 주식과 채권 시장에 더 큰 여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.

Six percent?

Many traders think rates will peak around 5%, but Jim Vogel of FHN Financial thinks rates higher than that are likely

Interest-rate scenarios

- Actual fed-funds rate
- Market-based fed-funds forecast
- FHN Financial scenario



Source: St. Louis Fed (historical rates), FactSet (fed-funds futures)

WSJ 기사

Bloomberg 오피니언: A Recession Suddenly Looks Like It Can Be Avoided

‘미 경기 침체’ 피해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.

요약: 고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일자리가 있어 연준의 고강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착륙 가능성 커진다.

- 투자자들은 지난 6월 연준이 금리를 0.75% 올릴때 침체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다. 그런데 매달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. 해고가 늘어나도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.
- 시장은 연준 금리 5% 인접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. 그러나 경제의 연착륙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인플레 둔화로 연준이 5% 금리에서 중단할 경우에도 주식이 아마 랠리를 보일 것이라는 것.

- 중고자동차 가격과 향만 선박비 등 팬데믹 요인이 정상화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다. 특히 노동 시장의 강세는 여전하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Elon Musk sells at least \$3.95 billion worth of Tesla shares after Twitter deal

일론 머스크, 트위터 인수 후 39억 5천만 달러치 테슬라 주식 매각

-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4백 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를 마친 뒤 자신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식 1천 9백 50만 주를 팔았다. 최소 39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이다.
- 이는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한 것으로, 테슬라 주식 매각 외에도 수많은 주식 투자자와 사업가,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등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.

CNBC 기사

[IRA 법]

CNBC: Europe shows a united front against Biden's Inflation Reduction Act

유로존, 미국의 전기차량 보조금에 집단 항의

- 유럽은 미국이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광물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를 위배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.
- 유럽과 미국의 고위관리로 구성된 테스트 포스가 지난주에 이와 관련된 만남을 가진데 이어 유럽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마다 미팅을 할 계획이다.
- 현재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. 물론 현재 한국과 유럽, 일본의 공조 대응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.

CNBC 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China Producer Prices Turn Negative in Warning Sign for Global Economy

중국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...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고

- 이번 주 수요일 중국 통계청은 10월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전년 대비 1.3% 줄었다고 밝혔다. 이는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것.
- 이는 1년 전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최근의 원자재 가격 하락과 맞물려 1년간 편차가 커졌기 때문이다. 게다가 서구의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며 재고가 급증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.
- 중국의 생산자물가, 운송 요금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. 하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. IMF는 세계 GDP가 2021년 6% 성장에서 올해 3.2%, 내년에는 2.7%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South Korea Jobless Rate Remains Low in Sign of Resilience

한국 실업률 낮게 유지... 일자리 증가 속도는 둔화

- 이번 주 수요일 통계청은 한국의 10월 실업률이 2.8%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. 1년간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67만 7천개였다. 제조업, 식당, 숙박업은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소매/도매업은 10월 6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.
- 한편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년 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다. 하지만 코로나 규제가 풀리며 긴축 정책의 영향이 완화되었고 소비를 촉진시켰다.
- 원화의 약세는 수입품과 에너지 비용을 높이며 사업 비용을 상승시켰고, 코로나 전염이 되살아나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Europe Doubles Down on Big Government

유럽, 경제 위기에 “더 큰 정부”로 대응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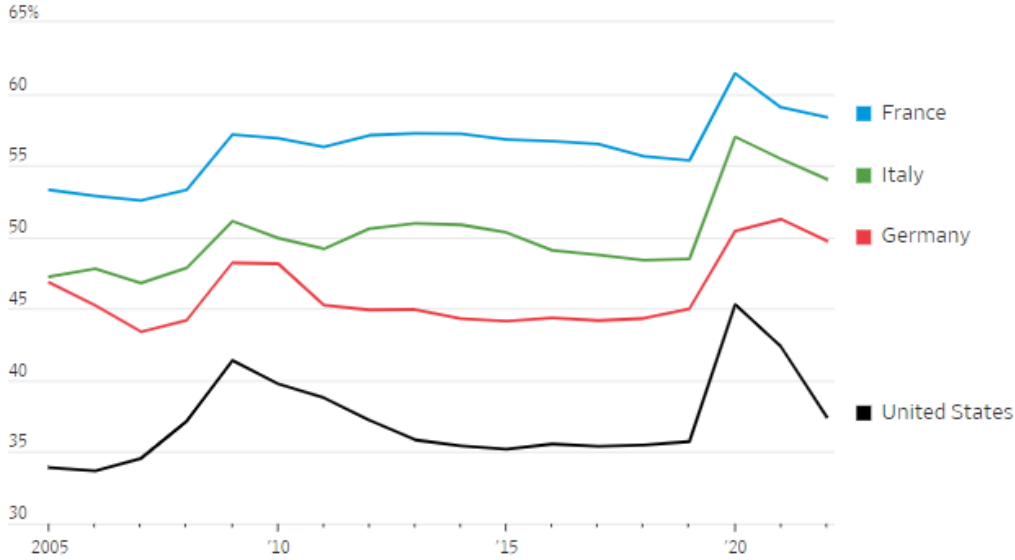
-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은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“더 큰 정부”를 택했다. 공공부문 일자리 수십만 개를 추가하고, 기업 대출을 보장하며, 에너지 요금을 보조하는 등 인프라 구축, 국방, 핵심 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.
- IMF에 따르면 올해 유로존 정부의 지출은 경제 생산량의 51%에 달해 2019년보다 4%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. 유로존 전역의 공공 부문 고용은 2019년 이후 4% 늘었는데, 서비스직이 1% 증가, 제조업이 1%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.

- 한편 이러한 큰 정부 정책은 올해 유럽 경제가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이다.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 회복을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위험도 수반한다고 분석한다.

State Splurge

Europe's governments have kept spending heavily while the U.S. has cut back

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, % of GDP



Source: International Monetary Fund

WSJ 기사

[물류/운송]

Bloomberg: Logistics Strains Ease for Small Firms But Inflation Remains a Top Wor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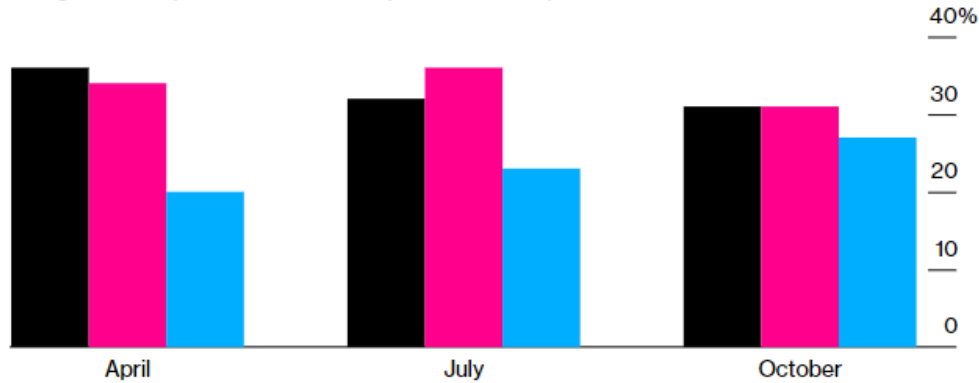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물류 부담 완화... 인플레이는 여전히 걱정거리

- 이번 주 화요일 발표된 전미자영업연맹(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)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중소기업들의 낙관적인 전망은 판매 악화로 인해 4개월 만에 떨어졌지만 공급망 차질은 진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.
- 자영업자의 31%가 공급망 차질이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, 비슷한 비율로 인플레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는데 이는 9월의 30%보다 늘었다.
- 미국의 11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92만 대로,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백만 대를 밑돌 수도 있다. 2023년 2월 물동량은 171만 TEU로, 2022년 같은 달보다 19%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

Supply-Chain Disruptions Slowly Subsiding

Fewer US small firms cite significant or moderate effects on business

■ Significant impact ■ Moderate impact ■ Mild impact



Source: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

Bloomberg 기사

[한국 경제지 기사들]

- **한경:** "IRA 예산 폐기" 버리는 공화당...한국 車업계 숨통 트이나
- **연합:** 前 보스턴 연은 총재 "美, 2023년 완만한 경기 침체 맞이할 것"
- **연합:** 美달러 가치 7주새 최저로 급락..."약달러로 전환은 '시기상조'"
- **한경:** 저커버그 "메타, 직원 11,000명 해고...모든 게 내 책임"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CNBC: Disney wants you to focus on revenue and profit instead of streaming subscribers — just not this quarter

디즈니, 스트리밍 구독자보다 매출과 수익 희망

- 디즈니는 4분기 1천 2백 10만 명의 디즈니+ 구독자와 1천 4백 60만 명의 직접 소비자 고객을 새로 확보했다. 하지만 스트리밍 분야 순 영업 손실은 1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. 이에 디즈니의 주가는 6% 떨어졌다.
- 한편 디즈니는 이번 분기가 스트리밍 분야 손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 분기 영업 손실이 2억 달러 개선되고 2023년 2분기에는 더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.
- 디즈니는 다음 달부터 대폭적인 가격 인상과 광고 포함 구독 출시를 앞두고 있다. 두 방안 모두 가입자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**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****'월가 큰손' 일본이 떠난다...美 국채금리 상승 압박 '위험'****WSJ 보도..."기록적 엔저 + 환율 헤지 비용 때문"**

일본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며 뉴욕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8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 미 국채시장의 큰손 일본인들이 기록적 엔저와 킹달러 앞에서 주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WSJ는 전했다.

지난 수 년 동안 일본은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로 손에 꼽혔다. 덕분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비용은 낮게 유지됐다.

하지만 이런 일본이 이제 변하고 있다. 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락하는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미 국채 단기물을 매각중이라는 신호들이 쌓이고 있다. 게다가 일본 기관투자자 일부는 미 국채를 포함해 외국 채권 보유분을 경쟁적으로 줄이는 중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